

김문수 후보는 KD운송그룹과의 관계를 밝히십시오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외치는 김문수 후보, 그의 말은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17일과 19일에는 2006년 건설업체 임직원에게서 2천5백만 원, 201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로부터 6천만 원, KD운송그룹 계열사 직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불법 후원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불법 후원 과정에서 후원에 연루된 자들은 처벌받고,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로 범망을 빠져나갔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직전, KD운송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후원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5개 계열사 2,998명의 직원이 동원되어 후원했고, 회사는 후원을 위해 급여를 가불해 줬습니다.

김문수 후보 후원회 성명불상의 관계자는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거액을 분산 입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과연 김문수 후보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와 KD운송그룹의 관계를 보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쫓개기 후원 1년 후인 2011년 경기도의회에서는 KD운송그룹의 횡포와 독점의 폐해가 지적됩니다. 2011년 11월 민경선 전 도의원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KD운송그룹이 경기도 전역에서 노선 신설과 폐선을 마음대로 하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은 경쟁업체 흑자 노선에 자사 버스를 변칙적으로 투입해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인수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민 전 의원은 “불법적인 노선 증설과 침범, 폐선 등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듬해인 2007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KD운송그룹 사우가족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도지사가 공적단체가 아닌 사기업 직원가족의 친목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2009년에는 KD운송그룹 허명회 회장이 경기도청에서 공무원과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KD운송그룹 계열사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KD운송그룹은 버스회사 지원금으로 매년 백억 대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허명회 회장은 무슨 연유로 경기도청에서 특강을 했습니까?
경기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사의 회장을 강연으로 마주했을 때 공무원들이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KD운송그룹 사우가족 행사에는 무슨 연유로 참석했습니까?
KD운송그룹 회장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KD운송그룹의 횡포와 독점적 폐해는 확인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2010년 3억 원의 후원은 정말 몰랐습니까?
판결문에 나오는 김문수 후보 후원회 성명불상의 관계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KD운송그룹 후원에 대한 보도가 한창이던 2011년,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억울한 적 없었다”, “청렴은 신념이자 자부심” 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십시오.
그것이 청렴을 입에 올린 사람으로서, 대선후보로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KD그룹 사우가족 교양강좌 및 간담회 도지사 인사

작성자 관리자 2007.07.17 00:00:00

🔍 📄

행사 : KD그룹 사우가족 교양강좌 및 간담회

일시 : 7월17일 낮12시

장소 :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 호텔 비스타홀

**참석 : 허명회 KD그룹회장, 이화수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권영만 OBS경인TV 부사장 등 사우가족 1,000여명
도지사 인사말**

사모님들이 많이 계시니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신다. KD그룹이 4,000대가 넘는 버스로 전국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감사하다. 허명회 회장님, 사장님, 임원여러분, 노조위원장님, 조합원, 직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명절 때도 애를 많이 쓰신다. 정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현대 시대는 스피드의 시대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늘 스피드 행정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빠른 시간 내에 막히지 않고 편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생은 100년이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을 아껴드리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운수업은 시간을 아껴주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돈도 아껴드린다. 여러분이 잘 봉사해주셔서 그만큼 찬 가격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이용을 한다. 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신 것은 KD그룹의 회장님과 여러분이 애쓰신 덕이다. KD그룹은 경기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KD그룹은 여기 오신 여러분 남편들께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직장이다. 오늘도 이렇게 위커힐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행복하시다니 도지사인 저도 행복하다.

행복을 나누고, 만들어가는 경기고속. 여러분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과 행복을 나누고, 만들어가는 좋은 KD그룹이 되길 기대한다. 여러분 감사드린다.

-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2103)

김문수 경기도지사과 함께



- 출처 : KD운송그룹(www.buspia.co.kr) 사보 웹진 2009 여름호 10쪽

희망의경기포럼177회<나의꿈,나의삶>

작성자 언론담당관

2009.01.14 13:58

카가



일시: 2009년1월14일(수) 08:30~09:30(60분)

장소: 제1회의실(신관4층)

참석대상: 300여명(도지사, 도 및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강사: 허명익(KD그룹 회장)

강의주제: 나의 꿈, 나의 삶

-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_m.do?number=200901141358448383C052&s_code=C052)